**CTO 특강 중간 보고서**

3주차 특강 (한훈 전 KT 부사장 강연) 후기 및 원하는 강의

학번 : B811115

이름 : 유병익

**#3주차 특강 후기**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뒤, 네트워크와 통신에 관련된 강의를 통해 당연하듯이 써왔던 인터넷과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네트워크 및 통신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한훈 전 KT 부사장님의 강연은 제가 평소에 배웠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가 어떻게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특히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통해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일반 기업과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차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기본 철학은 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은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차별화를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쓸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심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절대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유경제 시장이 아니라 큰 돈을 벌기 힘들다는 강사님의 농담이 재밌지만, 뼈 있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훈 전 KT 부사장님의 강연을 통해 통신사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을 이끌어오며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강연자님의 ‘공학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저도 훌륭한 공학자가 될 것이라 다짐했고, 앞으로 더 나은 ‘공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강의**

CTO특강 강의를 통해 여러 CTO들이 실무에서 겪은 사례들을 듣고, 해당 직군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해당 직군으로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관련 강연은 대부분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분야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는 IT 개발자의 강연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개발자가 되고 싶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많고, 기업들 또한 많은 개발자를 필요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준비과정과 현업에서의 어려움 등을 강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조언을 받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